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2. 7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요금은 7월 중 결정 예정임

(7.1일자 조선일보 「전기료 인상에 전기차 충전 할인도 종료... 완충에 2,000원 더 든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※ 환경부 공동배포

1. 기사내용

-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이 사라지면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은 kWh당 292.9원에서 313.1원으로 오르며, 현대차 아이오닉5 기준 완전 충전 비용은 약 2,000원 오를 것임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, 전기요금 인상 및 유가 급등과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.
-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은 7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.

※ 문의 : <산업통상자원부>

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(044-203-3910) / 이승원 사무관(3913)

<환경부>

대기미래전략과 김호은 과장(044-201-6880) / 김주엽 사무관(6897)